

신규상권 조성 시장 살린다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구축 공모사업 선정 18억원 투입

진안군은 지난 10일 청년몰(청년들이 운영하는 상가) 조성사업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진안읍 진안고원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가예산과 군비 등 총 18억여원을 들여 진안읍 진안고원시장에 식사와 문화, 체험이 결합된 신규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해 내년 10월께 문을 여는 청년몰은 세계음식 푸드코트, 사랑채합관, 야외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몰의 콘셉트는 다문화 열전(列傳)으로 진안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진안의 청년들이 만든 음식과 함께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의 각 나라별 전통음식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세계음식 푸드코트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무·진·장 동부권을 통합한 청년몰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청년몰을 중심으로 청년센터,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청년시설을 집중화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청년몰 배송 서비스 제공, 야시장 병행 운영,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마이산을 비롯한 주변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다른 청년몰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역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신규 상권 조성에 대한 짧은 층의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다"며 "청년몰 조성 이후에도 중앙부처의 다양한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사업)를 추가 유치하여 시장 주변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진안고원시장을 동부권 최고의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이 지난 5월 30일 무주읍 행복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했던 대기오염 측정소의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지역 매아리

“주거급여 사전 신청 하세요”

장수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기준 194만 3000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신청을 원하거나 안내를 받고 싶은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데이터로 보는 대기환경

무주 행복센터 옥상에 측정소 오염물질 실시간 파악 가능

무주군이 지난 5월 30일 무주읍 행복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했던 대기오염 측정소의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측정소 설치 위치는 4인으로 구성된 대기 및 환경전문가 평가단이 사전에 후보지 5곳을 조사·평가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 측정소에서는 풍향과 풍속, 기온 등 기상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

질 6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파악도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산업과 김성화 환경관리 담당은 "측정 자료는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측정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정보 상황은 환경부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을 하면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과수·산림분야 공동 방제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산림·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발해충(성충기) 2차 방제에 나섰다.

기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산림부서와 공동으로 농경지주변과 산림, 도로변 등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지의 활엽수와 사과·감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 산림기 방제적기에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를 동시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이를 위해 11개 읍면에 일반약제 450ha(924농가), 친환경약제 50ha(95농가)에 공급하였고, 산림과 협업을 통해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발생 인접 산림지에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살포 방제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방제용 평판 끈끈이 트랩을 6.1ha(28농가)에 배부해 갈색날개매미충 포살 시범도 실시한다.

올해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은 나무껍질 틈이나 줄기 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성충 산란시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다음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서영화 소장은 "이번 산림기 방제를 통해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을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5일간 '건강조사참여 Energy, 지역건강 Synergy'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장수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본 조사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이상 성인(1999년7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사전 선정된 통지된 가구의 가구원 약 900여명을 교육

받은 조사원이 직접방문 노트북을 이용, 1:1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18개영역 201개 조사문항 148개 지표산출을 위해 가구조사,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이환, 사고 및 중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조사는 7개읍면 78개마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 장수군 보건정책 수립, 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건강조사원(명찰패용, 조사원유니폼 착용)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전화 350-31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아이 첫 주민등록증 발급

무주군, 출생 축하·출산 장려 도모



무주군이 법적효력은 없지만 출생 축하와 출산장려를 위해 '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이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은 아기의 태모와 몸무게, 키, 혈액형이 적힌다.

대상은 생후 1년 이내의 아기들

로 '아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사진 1매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읍 김 모 씨는 "아내가 곧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꼭 신청을 해야겠다"라며 "애가 커서 아기 때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한 무주군은 △전입세대원과 △전입학생 지원, △돌봄 이상 자녀(고등학생) 학비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병부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휴가철 맞이 '셀프 그릴존' 마련

매일 오후 1시~밤 10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철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셀프 그릴존'을 마련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철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셀프 그릴존'을 마련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셀프 그릴존은 서늘한 그늘이 되어 줄 천막과 6인 테이블을 비롯해 그릴, 집게, 가위 등 바비큐 세트가 구성돼 있다.

가족들의 식성과 기호에 맞게 육류, 야채 등 음식 재료를 준비해 온가족들의 입맛을 당기는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즉석에서 스모키한 바비큐들이 그릴에서 구워진다. 바비큐에 어울리는 청량한 맥주와도 잘 어울린다.

주류와 음료는 리조트에서 구입가능

하다.

셀프 그릴존은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접수는 현장에서 가능하나 이용

고객이 많아 예약접수를 우선으로 받는다. 한편 셀프그릴존은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